

## 신혼기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 Variables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of Newly Married Men and Women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전은주\*\*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노인생활환경연구소

교수 · 연구원 김득성\*\*\*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

Master : Jeon, Eun-Joo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

Professor · Research Fellow : Kim, Deuk-Sung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riables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of newly married men and women who have been married for 5 years and do not have a child yet. Data were collected from 242 newly married men and women who were living in Busan.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First, newly married men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marriage when they engage in frequent pleasure seeking activities, had high intimacy with parent of both families and had less 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Second, newly married women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marriage when they engage in frequent pleasure seeking activities, had high intimacy with parent of both families, had mild depression, and had less 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

▲주요어(Key Words) :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즐거움 추구활동(pleasure seeking activities), 갈등악화 의사소통(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intimacy with parent of both families), 우울감(depression)

#### I. 서론

최근 결혼에 대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결혼을 규범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여기게 되면서

(Choi & Ok, 2003),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자아실현과 사회진출을 추구함에 따라 결혼 곧 출산모성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선택에 의해 부모됨을 결정하게 되면서 첫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가 늦어져(Eun, 2001; Kim, 2008), 부부로 구성된 신혼기가 연장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이혼통계에서 결혼기간 4년 이내의 이혼율이 전체 이혼의 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많은 신혼기 부부가 결혼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1). 또한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

---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학술연구비(2년) 일부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 전은주 (E-mail : iamhisbride@naver.com)

\*\*\* 교신저자 : 김득성 (E-mail : deskim@pusan.ac.kr)

격차이로 나타난 것은 결국 부부 당사자들의 문제로(Kang & Kim, 2008), 결혼기대에 대한 불만족과 부부관계에서의 실망감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갈등이 불가피한 신혼기에 대해 Huston et al.(2001)은 결혼생활에서의 첫 2년간의 관계의 질이 이후 결혼생활을 결정한다고 하였고, 이광자(1992)도 신혼기는 결혼생활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하며, 이때 부부가 결혼생활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낄 때 이혼을 결정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신혼기에 형성된 결혼만족도는 이후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Lee & Jeon, 2005), 이 시기를 유연하게 받아들여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혼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첫 자녀를 출산하기 전인 신혼기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부부의 의사소통(Yoo, 2010), 성생활(Kim, 2002; Kang & Chun, 2003), 원가족과 심리적 독립(Nam & Han, 2003) 등에 대한 연구들로서 대부분 단일변인만을 살펴본 연구에 국한되어 있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본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 의미와 과정이 달라 남녀를 분리하여 접근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Oppenheimer, 1988; Gottman, 1999),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각각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혼기는 성장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부로서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성격적 적응, 성적 적응,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 및 양가 가족 간의 관계의 적응 등을 위해 부부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시기이다(이기숙 등, 2009). Kang and Kim(2009)도 개인 특성, 원가족 및 부부의 관계적 변인이 결혼만족도를 높게 예측한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관계적, 가족적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고,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들(O'Leary, Christian, & Mendell, 1994; Whisman, Uebelacker, & Weinstock, 2004; Kong, 2008; Lee, 2010)은 일관되게 우울감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Whisman, Uebelacker, and Weinstock(2004)과 Kong(2008)은 우울감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하였으나, 국내의 선행연구(Kwon, 1996; Lee, 2010)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 신혼부부 중에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신혼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고, 신혼기 남성과 여성 모두가 그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므로(헤럴드경제, 2009),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이 신혼기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간의 성은 지금까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변인으로 강조되어 왔다(Yoo, 1974; Marokoff & Gilliland, 1993; Lee & Kim, 2003; Kim, 2005; Choi & Choi, 2007). 특히 신혼기는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과제로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관계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Kang & Chun, 2003). 따라서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부부로서의 애정이 이끌어내는 정서적 변인인 성적 친밀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적 친밀감이란 배우자와 성 활동을 나누는 과정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부부 사이에서 경험한 성적 활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표현과 행동의 노력 등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Massey, 1999). 성에 대한 적응이 시작되는 신혼기 남녀에게 성적 친밀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Kim, 2002), 신혼기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성적 친밀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애정이 관계의 기반인 신혼기 남녀는 대부분 연애기간을 거쳐 결혼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결혼 후에도 연애기간동안 누렸던 그들만의 활동을 공유하거나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를 원한다. Gottman(2000)은 부부관계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혼 예방과 부부관계 증진에 핵심요인이라고 하였고, 유계숙 등(2003)은 부부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부가 함께 시간을 공유하며 즐거운 감정을 증진시키는 것이 부부관계에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으로 Bryant and Wang(1990)은 다른 사람들보다 부부가 함께 활동을 공유할 때 더욱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으며, Stanley, Markman, and Whitton(2002)도 배우자와 함께 누리는 즐거움의 정도가 결혼만족도의 주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Shin, 2012). 최근 즐거움 추구활동이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측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Jang, 2006; Shin, 2012), 신혼기 남녀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계적 변인이라 예상된다.

선행연구(Hahlweg, Revenstorf, & Schindler, 1984; Gottman, 1994; Lee & Lee, 2000; Kwon & Kim, 2008; Hwang, 2009)에서는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관계적 변인이라고 밝혀왔으며, 특히 갈등을 악화시키는 의사소통은 이혼을 높게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Driver et al., 2003). 갈등악화 의사소통은 결혼초기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Lee, 2010; Shin, 2012), Jang(2006)은 부부가 부정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적 방법이 긍정적인 결혼상태를 침식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Lavee and Olson(1991)은 역기능적 부부는 갈등상황에서 문제중심 의사소통보다 감정중심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부부가 갈등상황에서 감정중심의 의사소통을 한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되어 분노, 원망,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됨으로써 갈등을 더욱 악화시킨다(Kang & Kim, 2008). 따라서 신혼기 남녀의 갈등악화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신혼기 남녀의 주요 과업 중 하나는 원만한 인척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Choi, 1997), 특히 양가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다. 신혼기 남녀는 양가 부모와의 관계에 적응해나가면서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기 때문에(Yoon, 2010), 기존의 선행연구(Park, 1994; Lee, 2010)들은 대부분 고부갈등에 초점을 두어왔다. 인척관계는 핵가족에게 혼인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소속감을 심어주고 정서적 유대관계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기숙 등, 2010, 226). 선행연구들(Landis & Landis, 1963; Leslie, 1967)은 기혼여성의 경우 시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Lee(1993)는 결혼초기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할 때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가족적 변인인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Yoo & Park, 1991; Ha, 2008; Kang & Kim, 2008; Hwang, 2009)은 가족적 변인 중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가 자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ewis and Spanier(1979)는 부모의 결혼생활의 질이 높을수록, 자녀의 결혼생활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 Cho and Park (2010) 또한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는 부부관계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의 결혼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Wilcoxon and Hovestadt(1983)는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이 특히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혼기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첫 자녀를 출산하기 전 신혼기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과,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적 변인으로 우울감을, 관계적 변인으로 성적 친밀감, 즐거움 추구 활동, 갈등악화 의사소통을, 가족적 변인으로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신혼기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아내어 신혼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및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이고, 첫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신혼기 남성 107명, 신혼기 여성 1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결혼기간을 만 5년 이하로 정한 것은 이 시기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에게 성격 및 생활관습에서 적응의 문제가 파생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며(Kim, 1992), 첫 아이 출산 전으로 한정지은 것은 초기 신혼기 부부관계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이다. 신혼기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 신혼기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 2. 측정도구

#### 1) 우울감

우울감 척도는 Derogatis(1983)가 개발한 SCL-90-R(간이 정신진단검사)를 김광일·김재환·원호택(1990)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 척도 중 우울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울기를 잘한다’, ‘허무한 느낌이 든다’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1$  이었다.

#### 2) 성적 친밀감

성적 친밀감 척도는 Lee(1995, 1998)의 부부친밀감 척도 중 성적 친밀감의 5문항을 사용하였다. ‘우리 부부는 성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리 부부는 성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진다’ 등의 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다. 부정적으로 묻는 3번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화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친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7$ 이었다.

#### 3) 즐거움 추구 활동

즐거움 추구활동 척도는 Markman and Stanley(2005)가 개발한 척도를 토대로 Jang(2006)이 만든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단둘이서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이트를 2주일에 한 번 이상한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같이 식사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 등의 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즐거움 추구 활동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en

N=107

Variables	Category	n(%)	Variables	Category	n(%)
age	20-24	2( 1.9)	dating Duration	less than 1 year	21(19.6)
	25-29	24(22.4)		1-2	30(28.0)
	30-34	55(50.5)		2-3	7( 6.5)
	35-39	23(21.5)		3-4	16(15.0)
	more than 40	3( 2.8)		more than 4 years	33(30.8)
final education level	High school	7( 6.5)	marriage Duration	less than 1 year	55(51.4)
	Junior College	20(18.7)		1-2	25(23.4)
	University	49(45.8)		2-3	19(17.8)
	Graduate School	31(29.0)		3-4	5( 4.7)
Job	unemployed/student	9( 8.4)	Monthly Income (Won)	under 1,000,000	7( 6.5)
	Part Time	6( 5.6)		1,000,001-2,000,000	13(12.1)
	Production	7( 6.5)		2,000,001-3,000,000	32(29.9)
	Sales/Service	6( 5.6)		3,000,001-4,000,000	24(22.4)
	Self-Employed	6( 5.6)		4,000,001-5,000,000	13(12.1)
	White Collar manager	37(34.6)		5,000,001-6,000,000	10( 9.3)
	Professional	26(24.3)		above 6,000,001	8( 7.4)
	Others	9( 8.4)		non-response	5( 2.1)
	pregnancy	not yet		40(37.4)	Monthly Income by wife (Won)
abortion		5( 4.7)	under 1,000,000	22(20.6)	
first pregnancy		62(57.9)	1,000,001-2,000,000	38(35.5)	
pregnancy before marriage	no	96(89.8)	2,000,001-3,000,000	20(18.7)	
	yes	10( 9.3)	3,000,001-4,000,000	1( 0.9)	
	non-response	1( 0.9)	4,000,001-5,000,000	0( 0.0)	
			5,000,001-6,000,000	0( 0.0)	
			above 6,000,001	0( 0.0)	
			non-response	0( 0.0)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 이었다.

#### 4) 갈등악화 의사소통

갈등악화 의사소통 척도는 Gottman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개념을 기초로 Kwon and Kim(2008)이 개발한 척도 중 비난, 경멸, 방어와 Melby, N, Conger and Warner(1995)의 Positive Marital Interaction Index를 Kang and Kim (2008)이 수정한 척도 중 부정적 의사소통, 요구-회피적 의사소통을 사용하였다. '길게 잔소리 한다', '배우자가 화를 낼까 봐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말하지 못한다' 등의 22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악화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2$  이었다.

#### 5)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 척도는 Kim(1993)이 기혼여성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정서적 지지 제공 척도 3문항과 Kim and Oh(1998)의 친족관계 밀접도를 알아보는 척도 1문항을 사용하였다. '우리 부부는 서로의 부모님을 존경해 드린다', '우리 부부는 명절 이외

에도 종종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 뵙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등의 총 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가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4$  이었다.

6)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 척도는 Lopez(1986)의 Family Structure Survey(FSS)의 부부갈등 척도를 Kang and Kim (2008)이 수정한 척도 중 신뢰도가 낮은 한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우리 부모님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셨다', '나

는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결혼생활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의 총 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다. 부정적으로 묻는 3번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화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0$  이었다.

7)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척도는 Lewis and Spanier(1979)의 Dyadic Adjustment Scale(DAS)를 한국 부부에 맞게 표준화한 Lee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Women

N=135

Variables	Category	n(%)	Variables	Category	n(%)
Age	20-24	10( 7.4)	dating Duration	Less than 1 year	27(20.0)
	25-29	46(34.1)		1-2	37(27.4)
	30-34	66(48.9)		2-3	15(11.1)
	35-39	13( 9.6)		3-4	20(14.8)
	more than 40	0( 0.0)		more than 4 years	36(26.7)
Final education level	High school	7( 5.2)	marriage Duration	Less than 1 year	64(47.4)
	Junior College	36(26.7)		1-2	40(29.6)
	University	74(54.8)		2-3	20(14.8)
	Graduate School	18(13.3)		3-4	6( 4.4)
Job	Housewife/student	44(32.6)	Monthly Income (Won)	under 1,000,000	8( 3.3)
	Part Time	2( 1.5)		1,000,001-2,000,000	23( 9.5)
	Production	1( 0.7)		2,000,001-3,000,000	59(24.4)
	Sales/Service	4( 3.0)		3,000,001-4,000,000	56(23.1)
	Self-Employed	2( 1.5)		4,000,001-5,000,000	44(18.2)
	White Collar manager	0( 0.0)		5,000,001-6,000,000	27(11.2)
	Professional	37(27.4)		above 6,000,001	20( 8.2)
	Others	6( 4.4)		non-response	5( 2.1)
pregnancy	not yet	38(28.1)	Monthly Income by wife (Won)	no gain	44(32.6)
	abortion	4( 3.0)		under 1,000,000	10( 7.4)
		first pregnancy		93(68.9)	1,000,001-2,000,000
pregnancy before marriage	no	115(85.2)		2,000,001-3,000,000	29(21.5)
				yes	10( 7.4)
	non-response	10( 7.4)		4,000,001-5,000,000	0( 0.0)
				above 6,000,001	0( 0.0)
				non-response	1( 0.7)
				non-response	5( 2.1)

and Kim(1996)의 부부관계 적응척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고 부적응 집단을 변별하는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부부간의 의견일치 5문항, 응집성 5문항, 관계에 대한 만족 1문항으로 총 11문항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8$  이었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들은 PASW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과 각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의 성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t-test를 사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및 각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와 각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의 성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신혼기 남성과 여성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신혼기 남성의 경우 우울감의 평균은 62점 만점에 18.96(6.33), 중간값은 17.00점 이었고, 성적 친밀감의 평균은 25점 만점에 19.63(3.29), 중간값은 20.00점 이었다. 즐거움 추구

활동의 평균은 25점 만점에 20.25(3.82), 중간값은 21.00점 이었으며, 갈등악화 의사소통의 평균은 110점 만점에 41.43(11.76), 중간값은 43.00점 이었다.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의 평균은 20점 만점에 16.30(2.27), 중간값은 16.00점 이었고,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의 평균은 15점 만점에 10.47(2.70), 중간값은 10.00점 이었다.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55점 만점에 45.65(5.54), 중간값은 47.00점 이었다.

신혼기 여성의 경우는 우울감의 평균은 62점 만점에 24.74(8.60), 중간값은 24.00점 이었고, 성적 친밀감의 평균은 25점 만점에 18.90(3.61), 중간값은 19.00점 이었다. 즐거움 추구 활동의 평균은 25점 만점에 19.99(3.77), 중간값은 20.00점 이었고, 갈등악화 의사소통의 평균은 110점 만점에 44.30(13.22), 중간값은 44.00점 이었다.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의 평균은 20점 만점에 16.07(2.55), 중간값은 16.00점 이었고,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의 평균은 15점 만점에 9.87(3.06), 중간값은 10.00이었다.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55점 만점에 44.66(6.47), 중간값 46.00점으로 나타났다. 성적 친밀감, 즐거움 추구 활동, 갈등악화 의사소통,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와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와 결혼만족도는 성차가 없었지만, 우울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t=5.80, p<.001$ ).

### 2.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우울감, 성적 친밀감, 즐거움 추구 활동, 갈등악화 의사소통,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신혼기 남성의 경우 다공선성을 검사한 결과 VIF는 1.0~1.6로 기준치 10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 다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잔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Durbin-

Table 3. Difference between the Variables

Variables	men(N=107)	women(N=135)	t
	M(SD)	M(SD)	
depression	18.96( 6.33)	24.74( 8.60)	5.80*
sexual intimacy	19.63( 3.29)	18.90( 3.61)	-1.64
pleasure seeking activities	20.25( 3.82)	19.99( 3.77)	-.54
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41.43(11.76)	44.30(13.22)	1.79
intimacy with parent of both families	16.30( 2.27)	16.07( 2.55)	-.73
parent's marital happiness	10.47( 2.70)	9.87( 3.06)	-1.60
marital satisfaction	45.65( 5.54)	44.66( 6.47)	-1.29

\* $p < .05$

Table 4. Correlation of Newly Married Men’s Marital Satisfaction with Independent Variables

N=107

Variables	1	2	3	4	5	6	7
1. depression	-						
2. sexual intimacy	-.23**	-					
3. pleasure seeking activities	-.35**	.55**	-				
4. 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54**	-.30**	-.25*	-			
5. intimacy with parent of both families	-.34**	.47**	.46**	-.30**	-		
6. parent’s marital happiness	-.18	.16	.17	-.23*	.33**	-	
7. marital satisfaction	-.48**	.50**	.59**	-.50**	-.56**	.26**	-

\* $p < .05$ , \*\* $p < .01$

Table 5. Correlation of Newly Married Women’s Marital Satisfaction with Independent Variables

N=135

variables	1	2	3	4	5	6	7
1. depression	-						
2. sexual intimacy	-.39**	-					
3. pleasure seeking activities	-.41**	.45**	-				
4. 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50**	-.29**	-.38**	-			
5. intimacy with parent of both families	-.37**	.44**	.50**	-.38**	-		
6. parent’s marital happiness	-.19*	.28**	.11	-.11	.17	-	
7. marital satisfaction	-.60**	.48**	.65**	-.59**	.65**	.10	-

\* $p < .05$ , \*\* $p < .01$

Watson 계수 또한 1.83으로 잔차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기 여성의 경우에도 다공선성을 검사한 결과 VIF는 1.0~1.6로 기준치 10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 다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잔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Durbin-Watson 계수 또한 2.0이므로 잔차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Table 4>와 <Table 5>에 제시하였다. 신혼기 남성의 각 변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는 .23에서 .59로 나타났다. 신혼기 여성의 경우 각 변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는 .19에서 .65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신혼기 남성은 우울감, 성적 친밀감, 즐거움 추구 활동, 갈등악화 의사소통,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가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있었다. 신혼기 여성의 경우 우울감, 성적 친밀감, 즐거움 추구 활동, 갈등악화 의사소통,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가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있었다.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각각 <Table 6>과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신혼기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설명력은 56%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F=17.87$ ,  $p<.001$ ). 신혼기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즐거움 추구 활동( $\beta=.30$ ,  $p<.01$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 $\beta=.24$ ,  $p<.01$ )와 갈등악화 의사소통( $\beta=-.24$ ,  $p<.01$ )이 영향을 미쳤다. 즉, 신혼기 남성은 즐거움 추구 활동을 많이 할수록,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갈등악화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혼기 여성의 경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설명력은 6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F=39.94$ ,  $p<.001$ ). 신혼기 여성의 경우 즐거움 추구 활동( $\beta=.30$ ,  $p<.001$ )이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 $\beta=.29$ ,  $p<.001$ ), 우울감( $\beta=-.24$ ,  $p<.01$ ), 갈등악화 의사소통( $\beta=-.23$ ,  $p<.001$ )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신혼기 여성은 즐거움 추구 활동을 많이 할수록,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을수록, 갈등악화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Table 6. Effects of Newly Married Men's Independent Variables on Marital Satisfaction

N=107

Independent variables	$\beta$	F	R <sup>2</sup>
depression	-.15		
sexual intimacy	.12		
pleasure seeking activities	.30*	17.87**	.56
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24*		
intimacy with parent of both families	.24*		
parent's marital happiness	.03		

\* $p < .05$ , \*\* $p < .01$ 

Table 7. Effects of Newly Married Women's Independent Variables on Marital Satisfaction

N=135

Independent variables	$\beta$	F	R <sup>2</sup>
depression	-.24*		
sexual intimacy	.08		
pleasure seeking activities	.30*	39.94*	.69
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23*		
intimacy with parent of both families	.29*		
parent's marital happiness	-.07		

\* $p < .05$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결혼 5년 이내의 첫 자녀 출산 전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우울감, 성적 친밀감, 즐거움 추구 활동, 갈등악화 의사소통,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는 중간값과 비교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성차를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신혼기 남성은 즐거움 추구 활동을 많이 할수록,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갈등악화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신혼기 남성의 경우 우울감, 성적 친밀감과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는 결혼만족도에 상대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신혼기 여성은 즐거움 추구 활동을 많이 할수록,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을수록, 갈등악화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신혼기 여성의 경우 성적 친밀감과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는 결혼만족도에 상대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기 남성의 결혼만족도는 즐거움 추구 활동과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 갈등악화 의사소통에 영향을 받았다. 이는 남성의 경우 현재의 긍정적인 상황이 본인의 결혼생활을 가장 잘 예측한다고 한 Kang and Kim(2008)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신혼기 남성의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현재 아내와의 즐거운 시간의 공유를 통해 부부관계의 긍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혼기 남성은 처가 부모와 친밀하게 지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Kim and Kim (2001)은 부계성향에 편향되는 인척관계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신혼기 남성은 양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양계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겠다. 또한 부부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신혼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많은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혼기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즐거움 추구활동,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 우울감, 갈등악화 의사소통이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도 즐거움 추구 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여성의 관계적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Lee(2011)는 남성과 여



성 모두 결혼 후 기대했던 것만큼 공통된 취미, 오락 등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아내의 경우 부부관계의 만족 뿐 아니라 시어머니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한 Shin(2012)의 연구 또한 지지한다. 이는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면서 시댁의 인정과 지지가 결혼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신혼기 여성은 시가에 대해 부담감을 갖기보다 감사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고부간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 현재 결혼생활 뿐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 특성인 우울감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아내의 경우 성격특성이 결혼만족도에 상관이 있다고 한 Kong(200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혼기 부부 교육 프로그램시 여성을 위한 개인상담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갈등악화 의사소통 또한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신혼기에 갈등악화 의사소통이 반복될 경우 그 이후 결혼생활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혼기 남녀는 갈등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Jang(2006)은 자녀 출산이후 부부간 갈등이 더 증가한다고 하였으므로, 출산 이전에 갈등악화 의사소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신혼기 남성과 여성에게서 차이가 있었다.

먼저 남성의 경우 다른 어떤 요인보다 즐거움 추구 활동이 가장 크게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으로 갈등악화 의사소통과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남성의 경우 무엇보다 현재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생각할 때, 결혼생활이 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관계에서 긍정적 감정이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힌 Gottman(2000)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갈등악화 의사소통과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부부간의 갈등을 다루는 중요성 만큼이나 양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신혼기 남성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혼기 남성은 부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신혼기 여성의 경우 즐거움 추구활동과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가 가장 크게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우울감, 갈등악화 의사소통 순으로 결혼만족도를 예측했다. 이는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부부관계만큼이나 양가 부모와의 관계가 결혼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자녀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도출된 것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여성에게 양가 부모에게서 경험할 수 있는 소속감이나 친밀한 정도가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는 현대 핵가족 사회에서 아내의 경우 친인척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이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구(Na & Kim, 1997)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양가 부모와의 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Yoon(201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신혼기 여성이 취약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양가 부모의 지지가 많을수록 만족스러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고도 예측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신혼기에 양가 부모와의 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고부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혼기 여성은 부부간의 즐거운 시간 뿐 아니라 시간을 내어 양가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울감과 갈등악화 의사소통 또한 신혼기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으므로, 신혼기에 우울감을 겪거나 부부가 갈등을 관리할 능력이 없을 때 적극적으로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상담센터 등의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신혼기 남성과 달리 신혼기 여성의 경우 우울감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혼기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 후 심리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혼기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직면하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최근 신혼 우울증을 겪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우울감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교육을 통한 예방이 시급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신혼기 여성의 우울감이 결혼 전부터 지속되었는지 아니면 결혼 후에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즐거움 추구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 갈등악화 의사소통도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현재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부부간의 즐거움 추구 활동을 장려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또한 갈등악화 의사소통을 예방 및 감소시키는 등의 부부관계적 측면에 대해 교육해야 할 뿐 아니라 양가 부모와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댁과 처가를 포함한 인척관계의 측면을 고려하여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신혼기 여성은 우울감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우울감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는 신혼기 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 시에 성차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심리적인 변화의 폭이 큰 출산 전후에 여성이 남편과 확대가족, 산부인과 등의 병원 및 센터 등에서 심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는 첫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결혼 5년 이내의 신혼기 남녀로 제한하였지만 40대도 포함되어 최근의 부부의 역할변화를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령을 제한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학력이 높아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주의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신혼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우울감, 성적 친밀감, 즐거움 추구 활동, 갈등악화 의사소통, 양가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를 선정하였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 외에도 신혼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변인 탐색이 요구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혼 우울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REFERENCE

- 김광일 · 김재환 · 원호택(1990). *간이정신 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 적성출판사.
- 유계숙 · 천혜정 · 김양호 · 전길양(2003). *부부탐구*. 도서출판 신정.
- 이광자(1992).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학회연구회, 사회문화연구소
- 이기숙 · 김득성 · 공미혜 · 김은경 · 전영주 · 손태홍 · 오경희 (2009). *결혼의 기술*(2판). 신정
- 통계청(2011). 2011 혼인 · 이혼 통계 인구동향과 브리핑.
- 헤럴드경제(2009). '둘' 이라서 더 우울한 신혼의 자화상. 2009. 7. 14. 31면.
- Bryant, W. K. & Wang, Y.(1990). Time together, time apart: An analysis of wives' solitary time and shared time with spouse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1), 89-119.
- Cho, S. & Park, S.(2010). Factors affecting marital satisfaction of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9, 149-174.
- Choi, H.(1997). *A Study of the Family-of-Origin Scale with a Sample of Couples in their Early Marri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Choi, M. & Choi, K.(2007). The Effect of Sexual Adjust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2(3), 59-83.
- Choi, S. & Ok, S.(2003).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iming at First Marriage : Focused on the Married Men and Women in the Thirti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8(1), 53-73.
- Driver, J. L., Tabares, A., Shapiro, A., Nahm E. Y. & Gottman, J. M.(2003). Interactional patterns in marital success and failure : Gottman laboratory studies. Im F. Walsh (Ed.), *Normal family processes: Growing diversity and complexity*(3rd ed., 493-513). N.Y.: Guilford Press.
- Eun, K.(2001). Differentials in the Duration between the First and the Last Birth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tatistics*, 26(1), 14-26.
- Gottman, J. M.(1994). *Why marriage succeed or fail*. N.Y.. Simon & Schuster.
- Gottman, J. M.(1999). *The marriage clinic: A scientifically-based marital therapy*. N.Y.: W. W.
- Ha, S.(2008). The Effect of Family-of Origin Experi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2), 129-141.
- Hahlweg, K., Revenstorf, D. & Schindler, L.(1984). Effects of behavioral marital therapy on couples'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4), 553-566.
- Huston, T. L., Caughlin, J. P., Houts, R. M., Smith, S. E. & George. L. J.(2001). The Connubial Crucible: Newlywed Years as Predictors of Marital Delight, Distress, and Divor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237-252.
- Hwang, J.(2009). Factors associated with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of Married Men and Wom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4), 825-840.
- Jang, S.(2006). *Variables influencing marital intimacy in the early stage of marriage*. Unpublished master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Kang, H. & Kim, Y.(2008). Factors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with Young Couples.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6(1), 135-156.
- Kang, M. & Chun, Y.(2003). The Effect of a Cognitive-Behavioral Sex Counseling Program on the Sexual

- Adjustment of Newly-Married Wives.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1(1), 1-39.
- Kim, C.(2008). *Factors that influence women's decision on pregnancy-childbir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I.(2002). *Relationship between newly married couples family value, self-value and their sexual life*.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J. & Oh, M.(1998). A Study on the Conjugal Role Structure As Related to the Degree of Closeness of Kin Networks. *The Journal of Living Culture Research*, 12, 129-149.
- Kim, J.(2005). *Sexual behaviors and Sexual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Unpublished master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Kim, S. & Kim, S.(2001). Kinship Behavior and the Satisfaction of the Spouse towards it in Early Stage of Marital Coupl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6(2), 91-111.
- Kim, S.(1993). *A Study on the Mutual Support between Married Women and their mother-in-law, mother*. Unpublished master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Kong, S.(2008). Original Articles : Influencing Fa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in Couples: Non-distressed Couples vs Clinical Coupl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4), 550-560.
- Kwon, Y. & Kim, D.(2008). The Influence of Married Couples' Argument-Communication Behaviors on Marital Satisfaction-Analyses at the Dyadic Level.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10), 83-96.
- Landis, J. T. & Landis, M. T.(1963). *Building a successful marriage(4th ed)*. Engle 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 Lavee, Y. & Olson, D. H.(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786-798.
- Lee, E.(2012). *The Influence of the Differences between couple's Marital-Expectation and Marital-Realities and Couple Communication on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ungsan.
- Lee, G. & Kim, Y.(2003). Sexu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7), 39-58.
- Lee, G.(1998). The Changes on Marital Communica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6(1), 167-287.
- Lee, H.(2010). *Effects of conflicts with mother-in-law on marital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s of spouse undermining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Lee, J.(2010). *Variables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of Women after their First Childbirth*. Unpublished master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Lee, K.(1995). A Measure of Marital Intima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0(4), 235-249.
- Lee, K.(1998). *Marriage types classified by wive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intimacy*.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M. & Kim, Z.(1996). A preliminary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Dyadic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5(1), 129-140.
- Lee, S. & Jeon, G.(2005). The Effect of Couple's Interaction Pattern of the Conflict-Coping Method as Perceived by the Husband and Wife on the Marital Satisfaction in the Early Stage of Marital Lif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7), 93-107.
- Lee, S.(1993).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with parents and parents in-law & marital satisfaction of newly-married couples in Korea*.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Y. & Lee, J.(2000). The Relation between Assertiveness, Aggressiveness, Daily Hassles,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3), 531-548.
- Leslie, G. R.(1967). *The Family in social context*.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R. A. & Spanier, G. B.(1979). Theorizing about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 Hill, R., Nye, L. Reiss, I.(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Y.: Free Press
- Markman, H. J., Stanley, S. M., & Blumberg, S. L.(2001). 김득성 · 김정옥 · 김영희 · 박충선 · 송정아 · 권윤아 공역(2004). *행복한 결혼생활 만들기*. 서울: 시그마프레스.

- Massey, R. F.(1999). *The Assessment of sexual intimacy: A validity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 Morokoff, P. J. & Gilliland, R.(1993). Stress, sexual functioning,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Research, 30(1)*, 43-53.
- Na, E. & Kim, H.(1997). Korean Family-Clan Living Patterns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3(1)*, 1-17.
- Nam, S. & Han, S.(2003). The Influence of Family of Origin on Wedded Couples's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Marital Intimac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3)*, 505-523.
- O'Leary, K. D., Christian, J. L. & Mendell, N. R.(1994). A closer look at the link between marital discord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 1-9.
- Oppenheimer, V. K.(1988). A thoery of marriage tim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3)*, 563-591.
- Park, S.(1994).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of daughter-in-law*.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Shin, W.(2012). *Wife's couple relationship variable and both mothers' emotional favor effecting satisfaction of marriage*. Unpublished master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Stanley, S. M., Markman, H. J. & Whitton, S. W.(2002). Communication, Conflict. and Commitment: Insight on the Foundations of Relationship Success from a National Survey. *Family Process. 41(4)*, 659-675
- Whisman, M. A., Uebelacker, L. A. & Weinstock, L. M.(2004). Psychopathology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importance of evaluating both partn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 830-838.
- Wilcoxon, S. A. & Hovestadt, A. J.(1983). Perceived health and similarity of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dynamic adjustment for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9(4)*, 431-434.
- Yoo, E. & Park, S.(1991). Research: The Developmental Patterns of Attachment and Autonomy as Related to Young Adults'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9(1)*, 139-158.
- Yoo, E.(1974). *Study of the Marital adjustment af Urban women in Korea*.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Yoo, O.(2010). *A Development and Effect of Newly married Couples Communication Education Program for the Enhancement of Marriag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Yoon, H.(2010). *study on solidity of kinship ties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접수 일 : 2012년 09월 15일

□ 심사 일 : 2012년 10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03일